

농경제유통학부 식품유통학전공 해외선진지견학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성 명	강명신	학 번	201812894
활동내용				
전공 관련 여행 중 인상 깊었던 점과 느낀 점				
저번 학기 때 들은 식품 산업의 이해라는 과목은 제게 식품 산업의 세계에 눈 뜨게 해주었습니다. ‘식품’이라는 이 두 글자에는 다양한 사회현상과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었고, 그 어떤 산업보다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가 시간 증가, 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등장한 가정간편식(HMR)시장은 저에게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점점 더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나오고, 이제는 산업과 산업이 연결되어 더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HMR시장의 선두주자 중 하나가 일본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저에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상품들로 가득 찬 우리나라 가정간편식 시장도 흥미로운데, 일본의 HMR시장은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물론 대마도는 일본의 중심지를 견학하는 것 보다는 한정적인 견학이었을 수 있었겠지만 제게는 대마도를 견학하는 것만으로도 설렘으로 가득한 채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마도를 향해 시작하는 첫 발걸음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깝다고 쉽게만 생각했던 대마도는 부산항까지 이동해 입국심사를 모두 거친 후 배를 타고 또 한참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국심사를 통과하며 만난 저희들의 얼굴에는 정말 해외로 나간다는 설렘과 우리들이 함께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는 표정을 서로에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국내여행도 아닌 해외여행을 친구들과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걱정이 되어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올 수 있는 배경에는				

해외선진전학프로그램이 있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 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만큼 많은 것을 배워가고, 친구들과 최대한 많은 추억과 경험을 쌓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마도 히타카츠 항에 도착하자마자 저에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스크림 자판기였습니다. 아이스크림 자판기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에게 편리한 자판기에 다양한 종류와 먹기 편리한 모양의 아이스크림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판기라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이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다른 시각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이 또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동력이 줄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판기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일본은 정말 다양한 냉동식품들이 편의점에도 구비되어있었습니다. 히타카츠 항 뒤에 위치한 조그마한 편의점 안에는 간편하게 먹을 수 다양한 냉동식품이 한 쪽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많은 종류의 냉동식품이 있지만 조그마한 편의점에도 이렇게 많은 물건을 비치해놓을 것을 보며 일본의 가정간편식에 대한 인기를 조금이나마 더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방문한 곳은 벨류 마트였습니다. 이곳도 그저 작은 동네 마트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한 번 둘러보는데 저와 친구들은 이것저것 살펴보니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던 도시락 코너였습니다. 분명 점심밥을 먹고 들린 곳

이었지만 사서 먹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다양한 음식들이 비치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옆에 국물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통이 놓여 저있었는데, 이러한 세심한 배려들 하나하나가 제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소비자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김밥을 산다고 해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조그마한 국물이 배치되어있나 없냐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 한발자국 더 다가가서 이해하는 모습이 식품산업에서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달라진 점

대마도에서의 여행은 저에게 정말 빠르게 지나간 하루이면서 그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했던 날이었습니다. 글로 배우는 것과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가정간편식에 대해서 배웠던 수업시간의 현장과 직접 다른 나라의 가정간편식 시장을 둘러보는 것은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요즘 대세는 가정간편식이라는 말은 익히 들어 알았지만 어딜 가나 거리에 위치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판기들, 어느 마트나 편의점을 들어가도 한 쪽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조리식품들은 저게 가정간편식 시장의 규모를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식품산업의 큰 굴레 안에서 요즘에 솟아나고 있는 가정간편식의 소용돌이를 직접 느끼며 이를 제가 관심 있는 분야와 접목해 보고 싶다는 생각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1,2,3차 산업을 접목한 농식품 6차 산업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재배, 가공을 뛰어넘어 체험프로그램까지 연계하고 있는 농식품 6차 산업화를 지향해 나가는데 있어서 HMR시장의 아이디어를 접목해해 2차 가공품과 체험시스템의 새로운 구축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은 혼자 갔다면, 또는 그냥 여행을 목적으로 갔다면 그저 지나쳤을 모습들 하나하나를 눈과 마음에 담아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또한 식품산업 뿐만 아니라 잠깐 마주했지만 일본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